

## 15. 전이성 악성 신경초종의 세포흡인검사 소견 Aspiration cytologic findings of metastatic malignant schwannoma

이응석, 조현이, 김인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해부병리과

연자들은 최근 왼쪽 등에 전이된 malignant schwannoma 1 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52세 남자로서 환자는 왼쪽 등에 6×6 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과거력상 10년전부터 복부와 서혜부에 종괴가 만져져 1년전에 종괴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절제된 종괴는 장경 18 cm, 무게 400 gm으로 피막에 둘러싸여 있었고, 절단면상 부분적으로 출혈성 괴사가 있는 소엽화된 황회색의 점액성 단면을 보였다. 방사선학적 소견상 폐에 전이된 것으로 추측되는 종괴가 발견되었고, 복강내에도 일부 종괴가 남아 있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던중, 왼쪽등에 종괴가 발견되어 세침흡입검사를 실시하였다.

세침흡입검사상 타원형 내지 길쭉한 방추형 세포가 개개로 흩어져 있거나 서로 모여 군집을 이루고 있었고, 세포질은 중등도로 길쭉하며 핵은 다양한 모양이었으나 대부분은 타원형내지 방추형이었고, 핵소체 유형은 과립형이며 핵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드물게 다핵 거대 세포가 관찰되었다. 1년전 절제된 종괴는 방추형 세포로 구성된 고밀도 종괴로 S-100 단백에 양성을 보이는 악성 신경초종으로 진단되었으나, 다핵 거대세포의 출현으로 악성 조직구성 섬유종과 감별이 어려웠던 증례였다.

## 16. 증식성 근막염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Proliferative Fasciitis

최윤정, 이상엽, 양우익, 정순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증식성 근막염은 세침흡인 생검 소견상 특징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세포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중앙부위가 더 진하고 작은 공포들을 포함하는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며, 가장 자리에 뚜렷한 핵인을 가지는 다양한 크기의 한 개 혹은 두 개의 둥근 핵을 가지는 신경절세포와 유사한 거대 세포이고, 또 하나는 둥글고 진한 핵을 가지는 방추형의 섬유모세포이다. 이 때 근육세포 조각이 신경절세포와 유사한 거대세포와 섞여 있는 양상이 관찰되는 것은 증식성 근막염에 합당한 소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성숙 섬유모 세포와 거대세포들이 섞여 있는 양상은,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며 다핵거대세포를 가지는 악성 섬유성 조직구성이나 배아형 횡문근육종 등과의 감별이 어려운데, 이러한 육종들은 더욱 불규칙한 경계와 핵질을 보이는 핵을 가진 다핵세포 혹은 방추형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상적으로 종괴의 크기나 증식양상 등을 고려하여 감별할 수가 있으며, 증식성 근막염은 전절제술 혹은 자연 퇴화로 치유되는 양성 질환이므로 이들 육종과의 정확한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질환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다. 저자들은 최근 72세 남

자의 전흉부에 발생한 증식성 근막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4일전 부터 전흉부에 촉진되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종괴는 압통을 동반하고 빠르게 증식하였다. 환자의 과거력과 가족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단순흉부촬영 소견상 폐실질내에 이상소견은 없었고, 초음파 소견상 왼쪽 전흉부의 피하층에 2.5×1.2 cm 크기의 연부조직 종괴가 관찰되었다.

세침흡인생검상 몇개의 흩어져있는 방추형 세포들 사이사이에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며, 대개 두개의 핵을 가진 신경절세포를 닮은 거대세포들이 관찰되어, 성장양상과 종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증식성 근막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직생검상 피하층에 미성숙 섬유모세포의 침윤성 증식과 연결하여 풍부한 호염기성 세포질을 가지며 두개 내지 세개의 핵을 가지는 신경절세포와 유사한 거대세포들이 흩어져 있으며 하방에 붙어있는 근육조직에도 이러한 세포들이 일부 침윤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증식성 근막염을 확진하였다.

## 17. 다형성 교아세포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Aspiration Cytologic Feature of the Glioblastoma Multiforme

이용희, 조미연, 정순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다형성 교아세포종의 세침흡인 소견은 광학현미경 소견과 유사하게 매우 다양한 세포모양을 보여 진단에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전이성 상피암종과의 감별이 어렵다. 또한, 세침흡인 검사를 통한 다형성 교아세포종의 세포학적 특징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 양성변화를 동반한 다형성 교아세포종의 세침흡인 검사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한다.

환자는 56세 남자로서 혼탁한 의식상태, 2주일간의 두통, 기억손상, 연하장애 및 구어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만성 B형 간염을 진단 받은 이외에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검사소견의 특이점도 없었다. 내원당시 시행한 전자기 공명영상 촬영상 우측전두 및 두정부의 뇌실질내에 경계가 뚜렷한 등근종괴가 관찰되었다. 이는 다양한 밀도(signal)의 고형성 종괴로 부분적으로 낭성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종양의 세침흡인검사상 등골고 농염된 핵을 갖는 세포들의 무리가 관찰되었고, 사이사이에 소혈관 구조와 함께 한쪽으로 치우친 핵과 풍부한 세포질을 갖는 세포들이 원섬유성 배경에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세포들의 세포질의 경계는 불명확하였고, 핵모양의 다양성이 관찰되었다. 피사성물질 주변으로 방추상의 세포들이 울타리 모양으로 배열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세포들은 GFAP (glial fibrillary acid prote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상 양성반응을 보였다.

절제된 조직의 현미경적 소견상 다발성의 광범위한 피사와 함께 이를 둘러싸는 작은 종양세포들이 울타리 모양으로 배열하고 있었고, 고세포밀도를 보이는 방추형의 작은 교세포들의 증식이 현저한 혈관내피세포의 증식과 함께 관찰되었다.